

# 신뢰·믿음으로 '원팀' 만들어 '소통 리더십' 꽃 피우다

81년생 이범호 감독, 취임 첫해 정규시즌 우승...이제는 'V12' 도전

팬들이 즐거워하는 '이기는 야구'... '팬 퍼스트' 철학 주효  
'이름값 보다는 실력' 선의의 경쟁으로 선수 잠재력 극대화  
선동열 이어 역대 두번째 최연소 정규시즌 우승 감독 등극

KBO리그 최초 1980년대생 사령탑인 이범호(43) 감독이 KIA 타이거즈를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른바 '소통 야구'가 결실을 맺으며, 부임 첫 해 새로운 명장 반열에 올라섰다. KIA는 지난 17일 인천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했다. 하지만 이날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에 4-8로 패하면서 KIA는 우승 매직넘버를 모두 사채하며 올 시즌 1위를 확정했다. 2017년 통합 우승 이후 7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는 통산 12번째 타이거즈의 우승을 노리게 됐다.



올 시즌 KIA 정규시즌 우승의 1등 공신은 단연 이범호 감독이다.

이 감독은 올 취임 당시 선수들에게 팬들이 즐거워하는 플레이를 강조했다.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이기는 야구를 펼쳐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그걸 성공의 반석 위에 올린 선수단을 아우르는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었다.

김종국 전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감독직을 맡게 된 이범호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KIA를 '원팀'으로 만들었다.

고참-후배 할 것 없이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야구를 펼칠 수 있도록 '권위'보다 형처럼 푸근한 리더십을 내세웠다.

선수들이 즐겁게 플레이를 해야 최고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이 감독만의 확고한 철학이다.

이 감독의 특유의 친화력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전-비주전 가리지 않고 기용하며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팀이 부진에 빠질 때도 이 감독의 지도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보다 선수들을 믿고 맡기는 플레이로 운영했다. 그렇게 신뢰와 믿음을 주며 선

수들과 위기를 극복해나갔다.

물론 항상 친근한 형님 스타일만 보인 건 아니다. 때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용하면서도 따끔한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간판 선수들이라도 부진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가차 없이 교체를 단행했다. 그만큼 개인의 명예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다.

이 감독의 '소통 리더십'은 이미 예전부터 증명돼 왔다.

한화 이글스에서 10년을 뛰고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를 거친 이 감독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KIA에서 활약하며, 남다른 카리스마와 소통 능력을 뽐

내 지도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KIA가 2021년 퓨처스(2군) 감독, 2022년부터 1군 타격코치 등 주요 보직을 이 감독에게 맡겨 능력을 테스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올 시즌 내내 이어진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에도 이 감독은 선수들과의 깊은 소통과 넓은 시야를 통해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함으로써 팀의 전력을 유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코치 시절부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선수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



7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한가위 대보름달 아래서 '삼배인 사위'로 정규시즌 1위 확정을 자축했다. KIA 선수단은 지난 17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경기 후 한국시리즈 직행 확정 세리머니를 한 뒤 곧바로 한강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세빛섬 마리나파크로 이동해 정규시즌 우승 축송회를 열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취임 첫해 팀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끈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

이 감독은 이번 정규리그 1위 확정으로 새 타이틀을 달게 됐다.

2005년 선동열 감독(당시 42세 8개월 12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42세 9개월 23일) 정규시즌 우승 감독이 됐다. 또, 2005년 선동열(전 삼성 감독), 2011년 류중일(전 삼성 감독)에 이어 취임 첫해 정규리그 우승을 일군 역대 세 번째 감독이 되면서 두 명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감독의 이번 우승은 가히 엄청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타이거즈에서 첫 선수 출신으로는 KIA를 정규시즌 1위로 이끈 최초의 사령탑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소통 리더십으로 올 시즌을 제패한 이범호 감독이 이제 새로운 타이거즈 왕조 건립에 나설 차례가 됐다.

/주홍철 기자

## '7골 축포'...광주FC, 亞 클럽 정상 향한 巨步

ACLE 1차전 요코하마 7대3

아사니 '첫 골·헤트트릭' 수훈  
내달 1일 원정 가와사키 2차전



광주FC가 아시아 클럽 정상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광주는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이하 ACL) 리그 스테이지 1차전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7대3으로 대파했다.

물려받지 않은 '이정효식 축구'로 무장한 광주는 지난 시즌 아랍에미리트 알아인과 아시아 정상을 다했던 요코하마를 상대로 초반부터 거침없는 공세를 펼쳤다. 전반 1분 광주의 역사적인 아시아 무대 첫 골이 터졌다.

요코하마의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아사니가 아크 서클 부근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수비를 앞에 두고 날린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손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전반 14분에는 오후성의 강력한 리닝 헤더 추가 골까지 터지면서 2대0으로 앞서나갔다.

전반 33분 요코하마 브라질 공격수 에우베르 만회골로 전반을 2대1로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 키오프와 동시에 아사니의 침투 패스를 받은 이견희가 골키퍼와 맞서는 기회를 맞았지만 오프사이드로 선언됐다.

후반 9분 광주에게 또다시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요코하마의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아사니가 환상적인 왼발 감아차기 슈트로 팀의 3번째 골을 완성했다.

요코하마가 후반 14분 에우베르의 만회골로 추격하자 광주는 곧바로 공격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견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엘리트(ACLE) 스테이지 1차전 광주FC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 광주FC 아사니가운데가 전반전에 골을 넣고 동료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 최경록, 오후성을 빼고 베가, 가브리엘, 이희균을 투입했다. 광주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22분 베가가 강력한 발리슛으로 4번째 골을 기록하며 다시 2점차 리드를 만들었다.

광주는 이어 후반 25분 가브리엘의 패스를 받은 이희균이 오른쪽으로 한번 짚은 뒤 정확한 왼발 슈트로 팀의 5번째 골을 완성했다.

후반 22분 중원에서 공을 잡은 가브리엘이 전진 드리블로 수비 두 명을 제치고 일대일 찬스를 맞았고, 요코하마 수비수 에두아르도가 거친 파울로 저지하며 레드카드를 받았다.

요코하마는 후반 39분 니시무라 타쿠마가 추격골을 터뜨렸다.

세 골 차 여유가 있는 광주는 템포를 늦추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추가 시간 12분이 주어졌다. 추가 시간 1분, 아사니가 이희균, 베가와 함께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아사니는 각을 좁히며 나온 골키퍼 머리 위로 살짝 찍어 차며 팀의 7번째 득점이자, 자신의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로써 아사니는 구단의 아시아 무대 첫 골과 첫 헤트트릭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는 오는 22일 홈에서 제주 유니타이트, 28일 김천 상무와의 원정으로 이어지는 K리그1 2연전을 치른 후 내달 1일 A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2차전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 원정길에 오른다. /백희중 기자

KS 1-2차전, 5-7차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서 열린다

## KIA, 안방서 V12 축포 쏜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면서 이제 팬들의 관심은 한국시리즈에 맞춰졌다.

KIA는 지난 17일 2위 삼성 라이온즈가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에 4-8로 패하면서 우승 매직넘버를 모두 소멸시키며, 올 시즌 1위를 결정지었다.

지난 2017년 통합 우승 이후 7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는 통산 12번째 타이거즈의 우승을 노리게 됐다.

전신인 해태 시절을 포함해 타이거즈는 1989년 단일리그 출범 후 1991년, 1993년, 1996-1997년, 2009년, 2017년에 이어 7번째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타이거즈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최강자로 군림하며 9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2009년과 2017년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며 총 11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게다가 전신인 해태 시절부터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갖고 있다.

이번에도 KIA는 그 신화를 이어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7전 4승제 한국시리즈의 1-2차전과 5-7차전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규리그 우승팀에 홈 어드밴티지를 주고자 한국시리즈 홈 편성 방식을 2-3-2에서 2-2-3으로 바꾼 2020년 1월 KBO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즉, KIA는 플레이오프 승자의 홈에서 3-4차전을 벌이며, 시리즈 진행

결과에 따라 홈 팬들 앞에서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아우르는 통합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찬스를 맞이했다.

KIA는 2009년과 2017년 한국시리즈 모두 잠실구장에서 추배를 들었다. 당시에는 5-7차전을 중립 구장인 잠실구장에서 치렀다.

11차례의 우승 과정에서 1987년에만 광주에서 챔피언으로 등극했고, 10번은 중립구장인 잠실 또는 상대 팀의 구장에서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바뀐 한국시리즈 진행 방식에 따라 2022년 SSG 랜더스가 최초로 홈인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우승 행가례를 치렀다.

당시 SSG는 키움 히어로즈와 4차전까지 2승 2패로 맞선 뒤 인천에서 열린 5-6차전을 잇달아 1점 차로 잡아 와이 어투와이어 우승을 완성했다.

2020년과 2021년 한국시리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지연과 추위 등을 고려해 모두 우리나라 유일의 동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NC 다이노스(2020년), kt wiz(2021년)는 중립 구장인 고척돔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지난해 LG 트윈스는 3승 1패로 앞선 채 잠실구장에서 치른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를 눌러 안방을 가득 메운 쌍둥이 팬들과 함께 29년 만의 정상 탈환을 자축했다. 한편, 정규리그 우승팀은 포스트시즌 배당금의 20%를 먼저 받는다.

/주홍철 기자